학회장 인사

장 하 성
(고려대 교수)

존경하는 한국재무학회 회원님께

한국재무학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한국재무학회장에 취임한 후 여러 학회관련 행사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재무포럼을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본 학회는 창립 이래 재무 및 금융관련 분야에서 순수 학술연구 활동뿐 만 아니라 정책심포지엄 등을 통한 재무 및 금융관련 정책 및 실무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학회지인 재무연구를 통한 학술연구의 교류와 참여를 통해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 자본시장, 국제재무, 파생상품 등의 분야에서 연구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재무학회의 21대 회장에 취임한 후 본 학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저를 비롯한 회장단은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어려운 금융환경 특히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재무학자들의 연구가 단순히 전통적이고 교과서적인 이론과 실증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다양하고 새로운 위험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정책적 함의를 산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우리 한국재무학회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금융환경과 자본시장은 큰 변화의 와중에 있고 계속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2008년 새 정부 출범 후 금융감독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변화가 진행 중에 있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고, 금융규제 및 금산분리의 완화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재무학자들이 항상 주의 깊게 분석해야 될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은 우리 한국재무학회 회원님들의 지혜, 노력,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 학회의 책임과 과제는 회원님들의 발전된 연구와 정책제언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재무학회 회장으로서 올해에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무연구에 우수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 학술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연구의 *SSCI* 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변화하는 기업환경,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학문적, 실무적 토론의 장으로 학술발표회와 정책심포지엄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술발표회 및 정책심포지엄을 통해 회원님들의 즐거운 참여와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셋째, 젊은 재무학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학회 및 학술지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젊은 학자들을 위한 큰 규모의 우수논문시상 및 연구비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벌써 금년의 반과 더불어 제 회장 임기의 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짧은 1년의 임기이지만 차기 한국재무학회장의 임기 시작 전에 전임 회장님들이 모두 그러하셨듯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과와 자산을 축적하여 본 학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재무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충남 아산의 증권업협회 연수원에서 본 한국재무학회의 주관으로 성대하게 개최되어 많은 재무, 금융 관련 학술연구논문이 발표, 토론되었고 "서브프라임 사태에 비춰본 금융시스템 리스크"라는 제목 하에 유익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심포지엄도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재무학회 회원님들이 모여서 많은 학문적, 현실적, 정책적 문제를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추계학술대회 등 여러 행사를 넓은 저변과 알찬 내실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마와 함께 盛夏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진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재무학회에 회원님들의 더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2008년 한국재무학회 이사회 신규구성

2008년 1월 1일 부로 한국재무학회 신규 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회 장	장하성 (고려대학교)	
차기회장	김대식 (한양대학교)	
부 회 장	강효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경서 (고려대학교)
	지동현 (국민은행연구소)	정성창 (전남대학교)
감 사	윤평식 (충남대학교)	이원흠 (홍익대학교)
간 사	김중혁 (고려대학교)	정병욱 (이화여자대학교)
이 사	강장구 (KAIST)	고광수 (부산대학교)
	공재식 (대구대학교)	구본일 (연세대학교)
	김성민 (한양대학교)	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김훈용 (동덕여자대학교)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박영석 (서강대학교)	박종호 (순천대학교)
	선정훈 (건국대학교)	설원식 (숙명여자대학교)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홍익대학교)
	왕윤종 (SK경제연구소)	위정범 (경희대학교)
	유 진 (충남대학교)	이명철 (경성대학교)
	이준서 (동국대학교)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정기웅 (계명대학교)	정재만 (서울시립대학교)
	조성욱 (서울대학교)	조성훈 (한국증권연구원)
	조진완 (고려대학교)	최범수 (신한금융지주)
	홍정훈 (국민대학교)	
편집위원장	허창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장	신진영 (연세대학교)	
대외협력위원장	길재욱 (한양대학교)	
재무포럼위원장	송수영 (중앙대학교)	
선거관리위원장	김덕영 (숙명여자대학교)	
웹관리위원장	이상호 (서강대학교)	

재 무 연 구

편집위원장	허 창 수 (서울시립대학교)	
편 집 간 사	홍 정 훈 (국민대학교)	정 재 만 (서울시립대학교)
편 집 위 원	강 준 구 (Michigan State Univ.)	김 상 배 (경북대학교)
	변 진 호 (이화여자대학교)	성 재 영 (Univ. of Illinois at Chicago)
	신 현 한 (연세대학교)	안 희 준 (성균관대학교)
	위 정 범 (경희대학교)	유 진 (충남대학교)
	정 진 호 (고려대학교)	채 준 (서울대학교)
	최 성 호 (전남대학교)	한 중 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사회 토의사항

2008년 제1차 이사회
일시: 2008년 2월 19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용수산> (태평로 소재)

2008년 제2차 이사회
일시: 2008년 5월 24일(토) 오전 8시
장소: 한국증권연수원 (충남 아산 소재)

※제1차, 제2차, 이사회에서는 아래 사항들이 논의되었음.

Ⅰ. 경과보고

1.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및 특별 심포지엄

- 일 시: 2008년 5월 23일(금) ~ 24일(토)
- 장 소: 한국증권연수원(충남 아산 소재)
- 특별 심포지엄: 서브프라임 사태에 비춰본 금융시스템 리스크

1. 서브프라임 사태가 주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 감독 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규복・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2. 서브프라임 사태와 구조화금융상품 시장: 문제와 시사점
   (김민석-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김대식(한양대 교수)
토론: 김동원(매경 객원논설위원), 김의진(삼성투신운용 상무)
김진겸(SC제일은행 부행장), 신진영(연세대 교수)
Sam Chung(Long Island Univ. 교수)

- 후 원: 국민은행, 삼성증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선물협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 SK증권
- 공동주최: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재무학회, 한국증권학회, 한국파생상품학회, 한미재무학회

Ⅱ. 논의안건 및 사업계획

1. 2008년 예산

(단위: 원)

수 입	금 액	지 출	금 액
회비수입	**6,350,000**	**발간비**	**21,000,000**
일반회원	1,050,000	재무연구	21,000,000
영구회원	4,200,000	**사업비**	**83,000,000**
도서관회원	1,000,000	5개학회 공동학술	35,000,000
기관회원	100,000	경영관련학회 하계학술	3,000,000
행사수입	**104,000,000**	추계심포지엄	10,000,000
5개학회 공동학술	50,000,000	추계학술대회	35,000,000
추계심포지엄	10,000,000	**회의비**	**4,500,000**
추계학술대회	44,000,000	이사회	3,000,000
용역수입	**10,000,000**	회장/간사단	500,000
학술수입	**7,650,000**	기타	1,000,000
논문투고 및 게재료	5,200,000	**인건비**	**18,200,000**
학회지 판권료	450,000	급여	16,800,000
기타 지원(학진)	2,000,000	퇴직적립금	1,400,000
기타수입	**5,000,000**	**일반관리비**	**6,300,000**
예금이자(기금 등)	5,000,000	사무비	700,000
		우편요금	400,000
		웹호스팅비	1,000,000
		복리후생비(4대보험/식대)	2,200,000
		기타	2,000,000
	133,000,000		133,000,000

2. 정관 개정(선거관리규정 개정) 건

(1) 정관 개정(안)

제12조(차기회장의 선출)

1. 차기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인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단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의 후보가 될 수 있다.

② 차기 회장은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우편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2차 투표에서도 다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차기회장을 확정한다.

2.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3인 및 무작위 추천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업무는 회장이 위촉하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수행한다.

4.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23조(각종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의 선임까지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된다.

부칙
9. 제10차로 변경된 정관은 2008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한다.

(2)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2조 차기회장의 선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칭함)를 둔다.
2. 선관위는 매년 9월 1일까지 구성한다. 다만 궐위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다.
3. 선관위의 위원 구성은 정관 제23조의 5.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칭함)를 둔다.
2. 회추위 위원은 회장, 차기회장, 직전회장 3인 및 무작위 추천 이사 2인 등 7인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회추위 위원의 임기는 회추위가 구성된 때부터 차기회장후보가 확정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차기회장후보의 선정 및 등록)
1. 회추위는 정관 제12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2인의 차기회장후보를 추천한다.
2. 선관위는 회추위의 추천후보 외에도 정회원 1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도 차기회장후보가 될 수 있음을 회원들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3. 회추위 추천과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차기회장후보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후보등록이 이루어진다. 단 회원의 직접추천에 의한 자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동의가 수록된 추천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
1. 차기회장후보는 선거규정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후 선관위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차기회장후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거운동으로 갈음한다.
2. 선관위는 후보약력 및 학회운영계획서를 투표지와 함께 각 회원에게 발송한다.
3. 후보약력은 성명, 소속, 생년월일, 학력(4줄 이내), 경력(5줄 이내), 학회활동(3줄 이내), 주요연구업적소개(4줄 이내)로 구성되어 1쪽으로 제한되고, 학회운영계획서도 별도의 1쪽으로 제한된다.

제6조(차기회장의 선출) 정관 제12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기 회장은 차기회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우편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이 참여하는 2차 우편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투표방법) 제1차 및 제2차 투표는 우편투표로서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있어야 개표대상이 된다.

제8조(개표)
1.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직후 빠른 시간 내에 개표를 실시한다.
2. 무효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며, 총회에서 공개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당선자 확정) 선관위는 투표를 개표한 후 유효와 무효를 재확인한 후 당선자를 확정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당선자 발표)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결과를 총회에서 발표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6월 14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__월 __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비고 및 기타
1) 정관 개정안 제12조 2항: …. 무작위 추천 이사 2인 등…. : 선출방식의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예를 들어 “무작위” 가 아닌 “무작위 추첨 2인 및 예비인 2-3인” 등으로 명시하여 추천방식을 선거규정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음.
2) 선거일정 가이드라인: 9월 심포지엄에서 임시총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 모아짐. 따라서 차차기 회장의 선출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

3. 재무연구 운영규정 변경 건

(1) 저널 구성의 international standard 준수

① copyright의 명기
o 의결사항: 표지 뒷면 하단에 "Copyright ⓒ 2008 Korean Finance Association"을 명기하기로 함.

② 발간논문 색인(창간호~제35호), 한국재무학회 정관, 회원명단의 삭제
o 의결사항: 삭제하기로 함.

③ 교신저자 표시
o 의결사항: 교신저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함.
o 원고작성규정 개정사항: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저자는 소속 및 연락처 등을 국문요약과 영문요약 첫 페이지에 각주로 명시하고 위 각주는 각주 번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교신저자 또는 Corresponding Author를 표시한다. 例) **대학교 **대학 **학과(부), 주소, e-mail, tel

④ key word 개수의 지정 및 요약의 분량
o 의결사항: key word의 개수 5개, 국문요약 500자 내외, 영문요약 400단어 내외, 영어논문의 영문요약 100단어 내외로 지정하기로 함.
o 원고작성규정 개정사항: 8. 연구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고 국문요약 (500자 내외)과 영문

요약(400단어 내외)을 첨부한다. 국문 요약에는 국문 저자명과 국문 주제어(5개)를, 영문 요약에는 영문 저자명과 영문 주제어(5개)를 명기하여야 한다. 단, 영어논문의 경우 영문 요약(100단어 내외)만 첨부할 수 있다.

2) 게재신청자 회원 자격

- 의결사항: 회원과 비회원의 심사의뢰비를 회원 7만원, 비회원 10만원으로 차등화하기로 함.
- 편집위원회 운영내규 개정사항: 2.2) 심사의뢰비, 게재료 청구 및 심사위원에게 논평비 지급: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시 저자로부터 심사의뢰비 7만원(회원) 또는 10만원(비회원)을 1회(수정 요구시는 면제) 징수하며, 게재가 확정될 경우에는 게재료 7만원을 징수하며, 인쇄 완료 후 별쇄본 10부를 저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1차 심사결과를 회신 받은 즉시 논평비 7만원을 1회 지급하도록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경우, 심사의뢰비는 US $70(회원) 또는 US $100(비회원)로 하며, 게재료는 US $70로 한다. 단, 복수 저자가 투고하는 경우, 1인 이상의 저자가 회원인 경우, 회원의 투고로 간주한다.

4. 경영관련 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관련

- 일시: 2008년 8월18일(월)~20일(수)
-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
- 주제: “경영이 나라 경제를 살린다”
- 운영방식: 전년도와 같이 증권학회와 공동 운영

5. 추계 심포지엄 관련

- 일시: 2008년 9월 중
- 장소(안): 전국은행연합회,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기타
- 주제(안): 펀드 자본주의와 한국 금융시장
- 담당: 부회장(박경서 교수)이 담당하기로 함.

6.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관련

- 일시: 2008년 11월 7일 또는 8일 (회원 설문조사 후 택일)
- 장소(안): 고려대, 기타(리조트)
- 일반 학술논문 세션: 간사 담당
- 산학협동 세션: 연구위원장(신진영 교수)이 담당하기로 함.
- 특별 심포지엄: 주제 미정

7. 임시 총회 개최 관련

- 임시총회를 개최할 경우(정관 변경 건): 차차기 학회장선거에 대한 변경
- 소위원회 구성: 김덕영 교수, 길재욱 교수, 박영석 교수
- 9월 심포지엄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이에 앞서 이사회 소집 필요

8. 재무연구 발간 및 배포 관련

- 연 3회 발간 (3월말, 7월말, 11월말)

9. 재무포럼 발간 및 배포 관련
- 웹 버전으로 통합
- 쟁점이 되는 이슈 및 오피니언 게재도 검토

10. 우수논문상 시상 관련
- <재무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2편 선정(최우수1, 우수1)
- 학술대회 관련 우수논문상 확대: <재무연구> 게재 및 12번과 연계
- 담당: 편집위원장&연구위원장

11. 이사회 개최 관련
- 지방에서 오시는 임원들께 소정의 여비 보조: 10만원

12. 재무학회를 통한 용역 관련
- 용역비의 일부를 간접비로 재무학회에 납부: 5%(예상)+기타소득세

13. Junior 교수들의 참여 관련
- 우수 논문상 시상
- 연구비 지급
- 정기 학회에서 Junior 교수들 중심의 round table

14. 재무학회 기금운영 관련
- 현재, 이자율이 낮은 MMF를 통해 기금운영
- 더 나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을 통한 운영
- 담당: 학회 간사

회 원 동 정

1. 신간서적

1) 석승훈 교수(KAIST)
『CEO를 위한 전략적 기업재무』, 석승훈, 경문사, 2008. 2.
2) 선우석호 교수(홍익대)
『금융선진화란』, 선우석호・최흥식・윤창현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8. 1.

2. 기 타

1) 송영출 교수(광운대학교): 2008년 1월~2008년 7월까지 연구년(中, 대련외국어대학)
2) 이태호 이사(한국채권연구원): 2008년 1월부터 숙명여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로 발령
3) 조성훈 박사(한국증권연구원): 2008년 5월 26일부로 부원장으로 승진

공 지 사 항

1. 2007년도 결산보고

<자산 현황>

(2007. 12. 31)

현금 및 예금	90,197,069	기금 적립금	
		전기이월액	118,548,809
		당기증가액	4,541,870
장기성 예금		예금액	
정기예금(대투)	123,090,679	전기이월액	63,958,634
		당기증가액	26,238,435
	213,287,748		213,287,748

<예산집행내역서>

(2007. 1. 1~2007. 12. 31)

1) 총괄표

구 분	예 산	실 적	비 고
수 입 액	90,000,000	126,136,655	
지 출 액	90,000,000	99,898,220	
이 월	0	26,238,435	

2) 수입지부

계정과목	예 산	실 적	비 고
회비수입	5,000,000	5,990,000	
행사수입	55,000,000	155,000,000	
용역수입	30,000,000		행사수입에 포함
학술수입		5,081,382	
기타수입		65,273	
합 계	90,000,000	126,136,655	

3) 지출지부

계정과목	예 산	실 적	비 고
발간비	18,000,000	23,187,970	
사업비	45,000,000	51,988,480	
회의비	5,000,000	1,480,680	
인건비	14,500,000	14,341,190	조교2명+퇴직적립금 포함
일반관리비	7,500,000	8,899,900	
합 계	90,000,000	99,898,220	

감사 김대식 교수(한양대)와 김철중 교수(홍익대)는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본 학회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회계장부와 관련증빙,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음. 본 감사들은 2007년도 한국재무학회 회계장부와 관련증빙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으며, 예산집행이 적정함을 확인하였음. 이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사단법인 한국재무학회 회장에게 있으며, 본 감사들의 직무는 위 재무제표와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

2. 학회 및 <재무연구>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회원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의 도서관이 현재 정기구독자가 아니면 정기구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50,000원(가입비 없음)

♠ 현재 도서관회원 명단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공주대학교
관동대학교	광주대학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회도서관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명정보대학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성금융연구소	삼성생명
상명대학교(서울)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우석대학교	육군종합행정학교	인제대학교	전국은행연합회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사회과학도서관	한세대학교	호원대학교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3. 회원 여러분들께서,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아시면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비: 3,000,000원

♠ 연회비: 100,000원 (가입 1년 후부터 지급)

♠ 현재 기관회원 명단

교보생명	국민은행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삼양사	(주)클리포드
(주)Fn 가이드	하나대투증권	하나은행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산업은행경제연구소	한국선물협회	한국증권선물거래소	SC제일은행
SK증권			

4. 기 타

회비 납입, 회원가입 등은 한국재무학회 홈페이지(www.korfin.org)에서 회원가입아내를 확인하시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회회원의 연락처(소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회 사무국(E-mail: office@korfin.org Tel: 02-3771-0835, Fax: 02-3771-08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개 학회 특별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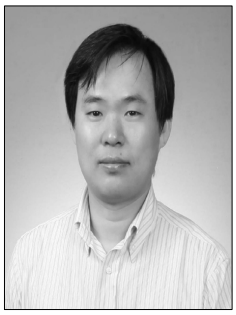
서브프라임 사태에 비춰본 금융시스템 리스크

한국재무학회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비워본 금융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2008년 5개 학회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 감독 정책, 그리고 구조화금융상품 시장에 대하여 보다 분석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다루었습니다. 아래는 두 개의 발표 논문이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 시간: 2008년 5월 23일(금) 16:45～18:45
- 장소: 한국증권연수원(충남 아산 소재)

■ 이 규 복 (한국금융연구원)
구 본 성 (한국금융연구원)



서브프라임 사태가 주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 감독 정책에 대한 시사점[1)]

본고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난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리스크관리,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국내 현황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나 금융감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본 사태에서 드러난 리스크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과도한 대출규모 확대 경쟁에 의한 부실한 모기지 심사와 대출기준이 완화된 새로운 상품들의 확대를 들 수 있다. 특히 변동금리 모기지(Adjustable-Rate Mortgages)는 금리인상시 상당히 큰 지급충격을 유발시켜 금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로는 유동화과정 중 신용위험이 전가됨에 따라 최초 모기지를 취급했던 금융기관은 더 이상 대출차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헤지펀드나 채권보증전문기관 등으로 신용위험이 옮겨졌고 이들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 외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 상승을 유인하는 시가평가방식(mark-to-market valuation)에 의한 회계처리 방식, 금융기관의 경영전략이 단기간의 수익창출에 집중되도록 유인하는 경영자나 투자담당자 등 대리인들에 대한 성과급체계 등도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9년 기관합동 지침서 등 이후 간헐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스크 관리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 유동화시장과 관련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였다는 점 등은 감독당국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함께 최근 연준의 새로운 유동성 공급방식이나 투자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금융 등이 향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과거 규제중심 감독에서 벗어나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거시금융감독체계나 동태적 건전성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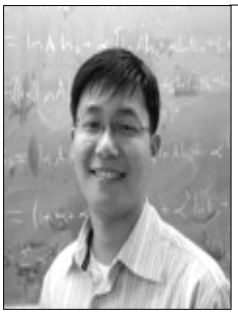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저금리·저물가에 의한 풍부한 유동성 지속,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관련 투자수요 증가 등의 국내 금융환경이나 성장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이를 위한 주택수요자 중심의 부가서비스 제공, 재연장방식의 대출 등 은행의 경영기조는 미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다는 점과 신용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출이 존재한다는 점 등도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주

1) 본 자료 및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택금융은 대부분 수신이 있는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자산규모의 확보 또는 대형화 유인 등에 기인하여 대출자산을 내부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MBS 등 유동화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출규모 확대가 제한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LTV가 유지되고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와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된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은행들은 과거 DTI보다 LTV 규제가 상대적으로 지속되어 온 점과 부동산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존 대출의 상환위험 관리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대출고객, 다주택 대출고객, 고액대출고객 등 고객 특성별 상환여력을 평가하여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여력(DTI)중심의 대출위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호황기에 급등한 건설업 및 PF대출 등 부동산 연계 기업대출에 대한 유동성 및 상환위험 관리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지역이나 특정주택종류별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집단대출, PF대출 등이 급등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역관련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주택금융 시장이 주택가격의 하락이나 소득흐름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거시적 위험(macro-risk)에 상당히 크게 노출되어 있는 만큼 거시적 위험관리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 변화에 연동한 LTV 및 DTI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DTI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LTV 등과 연계한 담보확충 방안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은행과 연계하여 유동성 문제 발생시 선제적 대처방안(예: special lending facilities)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원금상환위험 및 금리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자율적 만기연장 또는 계약조건 조정 등을 허용함으로써 상환이 안정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급등한 건설업 및 부동산업 관련 대출, 과거 DTI 관리 부재하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응하여 주택금융위험 연계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함으로써 자본완충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김 민 석 (한국증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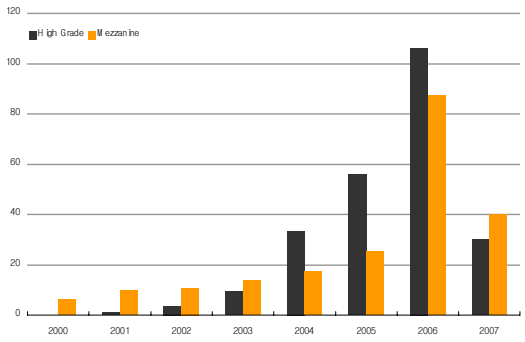
서브프라임 사태와 구조화금융상품 시장: 문제와 시사점

1. 서브프라임 사태의 배경: 구조화금융 상품 시장의 성장

○ 서브프라임 사태의 배경에는 2000년대에 들어 급격히 성장한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와 같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금융상품 (structured finance product) 시장의 성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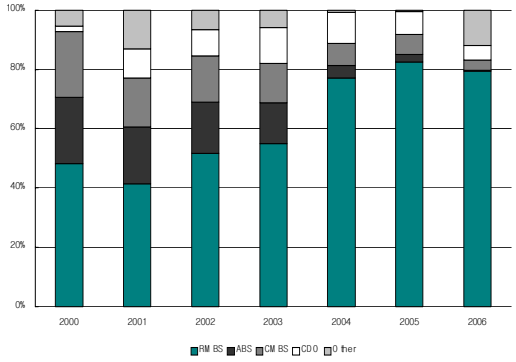
— 2008년 4월 1일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3282억 달러의 평가손실이 주요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구조화금융상품에서 발생 (Crediflux)

그림 20 ABS CDO의 발행 규모 (US$ billions)



자료: Lehman Brothers

그림 21 CDO vintage별 평균 기초자산 구성 비율



자료: Moody's Investors Service

○ 이 시기 구조화금융상품 시장의 폭발적 성장은 200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 이어진 미국 연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2000년대 들어와 이루어진 금융산업의 혁신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임

— 주요 혁신의 내용으로는 CDS 지수의 개발 (2004년 CDX, iTraxx, 2006년 ABX 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합성 구조화금융 기법의 발달, Gaussian copula method와 같은 구조화금융상품의 가치산정기법의 개발 등이 있음

2.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구조화금융상품 시장의 문제

○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구조화금융상품 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일부 헤지펀드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CDO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신용경색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짐

— 둘째, ABCP나 SIV(structured investment vehicle)를 운용하는 스폰서 은행의 경우 이들 ABCP/SIV가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CP의 롤오버가 되지 않자 통상적인 유동성 지원(line of credit 제공 등)을 넘어 직접 이들 CP를 매입하거나 이들이 보유한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자신의 대차대조표로 편입시킴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겪음

— 셋째,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화 과정이 대부분 그룹 내부의 계열사들을 거쳐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룹 전체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집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에 노출됨

3. 국내 금융시장에 주는 시사점: 금융혁신과 시장 안정의 조화

○ 서브프라임 사태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갖는 위험성과 함께 지주회사 체제에서 각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임

○ 그러나 국내와 선진 금융 시장의 환경은 무시한 채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자칫 이제 겨우 금융혁신의 토양을 갖추어 나가는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2008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프로그램

장소 : 한국증권연수원 (충남 아산 소재)　　일시 : 2008년 5월 23일(금)~24일(토)

Session Ⅰ (5월 23일(금) 13:00 ~ 14:30)

제1분과 : 기업재무 1　　좌장 : 장범식 (숭실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Suk Hi Kim (Univ. of Detroit Mercy) Kenneth A. Kim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김중혁(고려대)	IPO performance under low information asymmetry and low agency conflicts : The cases of demutualized insurers
정성창(전남대) 김현아(전남대)	설원식(숙명여대)	핫마켓상황에서의 IPO시장의 이상현상 및 공모기업의 재무적 특성
김용현(한세대) 김남곤(동덕여대) 박영석(서강대)	이준서(동국대)	Stock Returns, Operating Performance, and Tobin's Q Following Seasoned Securities Offerings

제2분과 : 기업재무 2　　좌장 : 변석구 (Baylor Univ.)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이봉수 (Florida State Univ.) 서정원(이화여대)	송교직(성균관대)	Who Repurchases Shares in Major Countries? : Evidence of Excess Cash Hypothesis
정성창(전남대) 김영환(전남대)	이상호(서강대)	유상증자 이후 자기주식 취득의 전략적 활용?
Soku Byoun (Baylor University)	서정원(이화여대)	Financial Flexibility and Capital Structure Decision

제3분과 : 투자론 1　　좌장 : 황선웅 (중앙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윤종인(백석대) 김성수(금융연수원)	박광우(KAIST)	모멘텀전략과 반대전략에 대한 사실성 체크검정
채 준(서울대) 양철원(서울대)	김화성(광운대)	Commonality in Investors' Irrationality
이재웅 (Vreije Unversiteit Amsterdam)	윤정선(국민대)	Shareholder Value Effects of Joint Venfure Companies in the Amsterdam Stock Exchange

▶▶ 제 4분과 : 투자론 2 좌장 : 최혁 (서울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Bok Baik (Florida State Univ.) Jun-Koo Kang (Michigan State Univ.) Jin-Mo Kim(Univ. of Missouri-Kansas City)	유 진(충남대)	Local Institutional Investors, Information Asymmetries, and Equity Returns
강형철(증권연구원) 이동욱(고려대) 박경서(고려대)	박형진(동국대)	Can differential interpretation of common information explain the distinct stock holdings of foreign investors?
Kee-Hong Bae (Queen's University) Arzu Ozoguz (Univ. of North Carolina) Hongping Tan (Univ. of Northern British Columbia)	이우백 (방송통신대)	Do Foreigners Facilitate Information Transmission?

▶▶ 박사과정 컨소시엄 1 사회 : 김태혁 (부산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김나영(한양대)	옥기율(부산대)	국내주식시장에서 거래행태의 정보로서의 역할
김광호(세종대)	이장우(동의대)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 주식시장 상호작용 : 주가정보 전이효과를 중심으로
최원호(서울대)	정재만(서울시립대)	자사주 매입의 취득목적과 시장반응 : 단기성과와 장기성과
한송월(서울대)	송수영(중앙대)	The Informational Role of Volume by Investor Group

Session Ⅱ (5월 23일(금) 14:45 ~ 16:15)

제 5분과 : 기업재무 3

좌장 : 윤석헌 (한림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윤정선(국민대) 정무권(국민대)	서정원(이화여대)	기업가치에 관한 비대칭정보가 기업합병에 미치는 영향
김화성(광운대)	오영호(위덕대)	An Indexed Executive Stock Option : Design, Pricing and Incentive Effects
오영호(위덕대)	양채열(전남대)	정보불균형과 경영자의 인센티브

제 6분과 : 기업재무 4

좌장 : 최종범 (성균관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Jun-Koo Kang (Michigan State Univ.) Jin-Mo Kim(Univ. of Missouri-Kansas City)	이동욱(고려대)	Do Foreign Investors Exhibit a Corporate Governance Disadvantage? : An Information Asymmetry Perspective
김병곤(창원대) 김동욱(부산발전연구원)	강형철(증권연구원)	한국기업의 지배구조가 자본구조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패널자료로 이용한 2SLS방법을 응용하여

제 7분과 : 투자론 3

좌장 : 김덕영 (숙명여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Michele O'Neill (Univ. of Idaho) 송민섭(서강대) Judith Swisher (Western Michigan Univ.)	김우진(고려대)	How Does Prior Information Affect Analyst Forecast Herding?
안옥화(고려대) 김주완(고려대) 김동철(고려대)	송민섭(서강대)	Is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Priced in Korea?
김동순(중앙대) 엄승섭(동서대)	김창수(연세대)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이익 예측이 더 정확하고 주가 영향력이 더 큰가?

▶▶ 제 8 분 과 : 투 자 론 4 좌장 : 박영석 (서강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고혁진(서강대) 박영석(서강대) 이재현(국민연금연구원) 이호선(서강대)	이우백(방송통신대)	유동성의 변동성과 초과유동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윤종인(백석대)	양철원(서울대)	생존분석을 이용한 상장폐지율 분석
안동현(서울대) 윤선중(KAIST)	정희준(전주대)	Endogenous Labor/Leisure/Investment Choice with Time Constraint and Asset Returns

▶▶ 제 9 분 과 : 파 생 상 품 1 좌장 : 김명직 (한양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황근호(KAIST) 강장구(KAIST)	김성수(금융연수원)	How Does Creditor's Liquidation Decision Affect Debt and Equity Values?
윤선중(KAIST) 변석준(KAIST)	윤원철(한양대)	The Difference of Implied Risk Aversions across International Options Markets and Individual Investors
윤원철(한양대)	황근호(KAIST)	원-엔화 통화선물계약의 도입과 헤징효과 분석

▶▶ 박 사 과 정 컨 소 시 엄 2 사회 : 전상경 (한양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김인호(성균관대)	위경우(숙명여대)	비상장기업의 IPO, 기업매각, 우회상장 선택 결정 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김형진(서울대)	강경훈(동국대)	법인세 자료를 이용한 한국기업의 소득이전에 관한 장기 추세분석
김진수(경북대)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혁신이 부도위험, 투자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Session Ⅲ (5월 24일(토) 9:00 ~ 10:30)

제 10분과 : 기업재무 5

좌장 : 윤영섭 (고려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박경서(고려대) 이은정(한양대) 안대민(고려대)	이원흠(홍익대)	연고주의는 반드시 나쁜 것인가?
김우진(고려대)	박경서(고려대)	Investor Protection and the Mode of Acquisition : An Implication for the Formation of Pyramids
Pornsit Jiraporn (Pennsylvania State Univ.) Jang-Chul Kim (North Dakota State Univ.) Young Sang Kim (Northern Kentucky Univ.)	정병욱(이화여대)	Dividend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Quality

제 11분과 : 기업재무 6

좌장 : 박진우 (한국외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김용환(산업은행) 이윤재(숭실대) 김문겸(숭실대)	조태근(기업은행)	금융제약이 국내 제조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avid P. Baron (Stanford University) Maretno A. Harjoto (Pepperdine University) Hoje Jo (Santa Clara Univ.)	최원근 (하나경영연구원)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이선애(KAIST) 석승훈(KAIST)	김남곤(동덕여대)	A Distinction between Business Groups and Conglomerates : The Limited Liability Effect

▶▶ 제 12분과 : 투자론 5 좌장 : 허창수 (서울시립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변석준(KAIST) 이진태(KIS채권평가)	김정태(현대증권)	칼만필터/QML을 이용한 다요인 선형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의 추정 및 적합성 비교
안동현 (The Royal Bank of Scotland) 김상수(이화여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물가연동부채권 가격결정모형
원종현(국민연금연구원)	최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금기금 제도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결정

▶▶ 제 13분과 : 투자론 6 좌장 : 이준행 (서울여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Zhongzhi He (Block University) Sahn-Wook Huh (Block University) Bong-Soo Lee (Florida State Univ.)	정재만(서울시립대)	Dynamic Factors and Asset Pricing
Kiseok Nam (Yeshiva University) Chong Soo Pyun (Univ. of Memphis) Joshua Krausz (Yeshiva University)	한상범(증권연구원)	Intertemporal Behavior of Expected Market Returns : Time-Varying and Asymmetry Properties
강상훈 (Univ. of South Australia) 윤성민(부산대)	변종수 (Univ. of Memphis)	Intraday Periodicity and Long Memory Property in High Frequency Data

▶▶ 제 14분과 : 파생상품 2 좌장 : 장국현 (건국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김 솔(한국외대)	최병욱(건국대)	Option Pricing with Extreme Events: Using Câmara and Heston(2008)'s Model
김석진(경북대) 도영호(경북대)	김 솔(한국외대)	KOSPI 200 옵션 내재변동성의 결정요인

Session Ⅳ (5월 24일(토) 10:45 ~12:15)

제15분과 : 기업재무 7

좌장 : 주상룡 (홍익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박범진(충북대)	정성훈 (주택산업연구원)	소액주주 및 이사회구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조성욱(서울대) 정진영(서울대)	백재승(한국외대)	Do Managers Affect Firm Value in an Emerging Market?
백재승(한국외대) Tianshu Liu(한국외대)	정진호(고려대)	Exploration Study on Shareholder Wealth and Ownership Structure in China and Korea

제16분과 : 기업재무 8

좌장 : 이원흠 (홍익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권세훈(증권연구원) 한상범(증권연구원)	이치송(전북대)	한국의 기업파산 듀레이션에 대한 경쟁위험 분석
정진호(고려대)	문성주(경상대)	Dynamics of Dividend Policy in Korea
이원흠(홍익대)	김 범(숭실대)	대리인비용 하의 기업가치평가모형과 대리인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제17분과 : 투자론 7

좌장 : 김동석 (KAIST)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최 혁(서울대) 양철원(서울대)	신정순(이화여대)	Comparisons of Liquidity Measures in the Stock Markets
윤상용(연세대) 구본일(연세대) 엄영호(연세대) 한재훈(연세대)	선정훈(건국대)	한국 주식시장에서 유동성 요인의 횡단면적 설명력에 관한 연구
최 혁(서울대) 우민철(서울대)	윤상용(연세대)	유동성공급자 간 차이에 관한 실증분석 : 한국 주식워런트증권 시장의 경우

▶▶ 제 18분과 : 투자론 8 좌장 : 연강흠 (연세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윤영섭(고려대) 손판도(고려대) 김성신(고려대)	오승현(서울여대)	집중된 펀드의 성과가 더 우수한가? : 한국 펀드시장에서의 증거
최성희(에너지경제연구원) 송무헌(에너지경제연구원) 김수일(에너지경제연구원)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Does Investor's Sentiment Predict Prices Movements? : A Case Study of the NYMEX Petroleum Futures Markets
임병화(KAIST) 신용현(KAIST)	손판도(고려대)	Optimal Investment, Consumption and Retirement Decision with Disutility and Liquidity Constraints

▶▶ 제 19분과 : 파생상품 3 좌장 : 윤창현 (서울시립대)

발 표 자	토 론 자	논 문 제 목
옥기율(부산대) 장우애(부산대) Yong H. Kim (Univ. of Cincinnati)	김 솔(한국외대)	Option-Trading Activity and Stock Price Volatility : A Regime-Switching GARCH Model
Jongmoo Jay Choi (Temple University) Connie X. Mao (Temple University) Arun D. Upadhyay (Temple University)	김용헌 (Univ. of Cincinnati)	Corporate Risk Management under Information Asymmetry : Evidence on R&D and Hedging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특 별 심 포 지 엄◀

5월 23일(금) 오후 16:45~18:45

▶▶ 주제 : 서브프라임 사태에 비춰본 금융시스템 리스크

-서브프라임 사태가 주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 감독 정책에 대한 시사점

-서브프라임 사태와 구조화금융상품 시장: 문제와 시사점

사회 : 김대식(한양대 교수)

발 표 자	토 론 자
이규복(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석(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원(매일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김의진(삼성투신운용 상무) 김진겸(SC제일은행 부행장) 신진영(연세대 교수) Sam Chung(Long Island Univ. 교수)